

대학원 상담전공 준비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최혜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진로·심리상담실 상담원

김은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다예

승인중학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본 연구에서는 상담관련 대학원 석사과정을 전공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를 측정하는 ‘대학원 상담전공 준비도 척도(Scale of Readiness for Majoring in Counseling: SRMC)’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개방형 질문지,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구성개념을 정하고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석사학위자와 상담전공 교수진의 내용타당도 평정을 거쳐 21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상담관련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희망자 6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이 중 300명의 설문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요인, 15문항 구조의 측정 모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나머지 340명의 설문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요인, 15문항이 적합함을 재확인하였다. SRMC의 3요인은 ‘진로준비’, ‘대학원 진학준비’, ‘개인적 자질’로 명명하였다. SRMC 내적 합치도는 .801로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후, SRMC와 진로준비행동검사, 학습역량검사-인지, 진정성 척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SRMC의 수렴 및 준거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인지적 학습역량과 진정성에 대해 진로준비행동검사와 SRMC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증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상담전공, 상담전공 준비도, 대학원 상담전공 준비도 척도, 타당화

[†] 교신저자 : 최혜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진로·심리상담실, (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창조관 204호

Tel: 02-3668-4490, E-mail: isohwa@knou.ac.kr

상담자,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불리는 상담전문가(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 2474)는 1990년대부터 21세기 유망 직업으로 분류되어왔고,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도 향후 10년간 고용이 증가되는 직업으로 발표되는 등 오랫동안 유망직업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이시균 등, 2016). 이에 상담관련 전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2000년대를 기점으로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증설, 대학원대학교 및 원격대학원 설립, 상담관련 전공 학부 개설 등 국내 상담관련 전공의 정원이 대폭 늘어났다(조남정, 이미현, 김인규, 2015; 조운진, 유성경, 박소현, 윤민지, 장운진, 2010). 그러나 이렇게 상담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담관련 대학원 진학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들을 위한 대학과 학회 차원의 정보제공은 아직 미비하다(박신영, 2017; 최혜윤, 김은하, 홍숙선, 2019). 이에 상담관련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비공식적인 채널(예. 온라인 카페, 온라인 블로그, 평생교육원 학습플래너)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수집된 정보 간의 편차가 심하고, 정보 출처의 공신력이 부족해 정보선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혜윤 등, 2019). 또한 대부분의 국내연구가 상담전문가의 역량과 자질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김봉환, 2012; 남현주, 2014; 안현의, 2003; 유영권, 정승진, 문영주, 이경아, 이상선, 2011; 정환경, 김수경, 2017), 상담전공 예비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자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은 상담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로 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응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채운, 박지

아, 유성경, 강지연, 2009). 구체적으로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이 경험하는 적응문제는 크게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문제로 구분된다. 먼저 학교생활적응 문제로는 교과과정과 상담실무과정 병행으로 인한 방대한 학습량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학부가 비전공자인 대학원생들은 기초 이론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학업수행이나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유, 2018; 박신영, 2017; 박중환, 지명자, 2018; 이선미, 2018; 황채운 등, 2009). 또한 중·노년층 대학원생들은 가사·육아 또는 직장생활과 학업의 병행, 체력적인 한계, 제한적인 이해력과 기억력, 심리검사도구와 컴퓨터 활용의 어려움으로 학업곤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진옥, 정문주, 2018; 박선민, 양지용, 2019; 박중환, 지명자, 2018). 물론, 대학원에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대학원생 선발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대학원 응시자의 역량 편차도 크기 때문에 대학원 신입생들의 학업수행 준비 정도에는 큰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강의의 질과 내용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학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개설된 교과목의 다양성 부족, 자격증 취득과 연관성이 낮은 이론 중심의 교과목 개설, 상담전문가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제공부족, 상담전공 교수의 부족 또는 부재 등이었다(김지유, 2018; 박선민, 양지용, 2019; 안가은, 2015).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상담전공 대학원의 운영 및 교과과정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김정택, 도상금 1993; 최해립, 김영혜, 2006; 조운

진 등, 2010),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였던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 준비 단계에서 자신이 진학할 대학원 유형의 특성과 교과과정에 대한 탐색, 지도교수나 재학생들과의 면담,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 탐색 등이 충분했다면,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던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생들의 대학원 학습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는 이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적응문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생들의 진로적응문제를 살펴보면, 이들 중 일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담전문가 수련 과정과 제반 비용문제 그리고 상담현장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 등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상담전문가가 되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옥, 정문주, 2018; 박종환, 지명자, 2018; 황채윤 등, 2009). 즉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과 절차, 상담전문가의 직무, 채용정보 등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진로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자신의 계획이나 기대와 다른 상담현장의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진로적응문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일부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생은 상담실습과정에서 자신이 상담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거나,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슈퍼비전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감(슈퍼바이저의 피드백에 대한 반발, 슈퍼비전 준비과정의 힘겨움 등), 자기성찰과정에 대한 거부감을 경험하기도 했다(김진옥, 정문주, 2018; 박신영, 2017). 이는 상담관련 전공자들이 상담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혼

란과 갈등으로 이해되지만(황채윤 등, 2009; Rønnestad & Skovholt, 2003), 슈퍼비전이나 자기성찰과정에 대한 저항은 상담전문가로서의 자질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학원 입학 전에 상담전문가에게 필요한 인격적인 자질과 수련과정에 대한 사전정보가 있었다면, 진로적응문제로 소모되는 에너지와 학업중단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Richardson, Sheean과 Bambling(2009)은 상담수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상담계에 진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상담을 전공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탐색하려는 의향이 있는지, 상담전문가라는 직업적 특성(정서적인 요구가 많고,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감수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는 점, 상담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모두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 개인적인 삶이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할 수 있는지, 재정적인 보상이 반드시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상담수련과정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다른 사람의 인생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줄기를 원하는 개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 상담전문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나 힘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 연구는 상담전문가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예비상담전문가인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생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담계에 진입하기 전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했다. 해외의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이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또는 미국상담협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 인증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면허 취득 과정이기 때문에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생들의 역량과 자질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Kerl, Garcia, McCullough, & Maxwell, 2002; Lumadue & Duffey, 1999; Vacha-Haase, Davenport, & Kerewsky, 2004).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상담전문가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상담수련생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상담계에 진입하기 전, 즉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준비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해외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나 자질 등의 구체적인 준비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국내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생활적용 문제와 진로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예비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생활적용을 위해서는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학습역량, 학부와는 다른 대학원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대한 기초정보(개설 교과목, 지도교수의 특성 등) 습득 등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교육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현정과 신택수(2007)의 연구에 따르면, 석사과정에서는 연구수행능력, 자료분석능력, 대인관계능력, 외국어 사용능력, 발표능력, 자기관리능력, 윤리의식 및 성실성,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논리적 사고능력), 정보활용능력, 학제 간 지식과 창의성, 실무 및 실습능력 등 11가지의 학습역량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상담대학원은 교수 및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일반대학원, 직장인 및 성인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 전문직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교육과학기술부, 2013) 대학원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후 진학할 대학원을 선택할 필요도 있겠다.

다음으로,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의 진로적용을 위해서는 상담전공자에게 적합한 개인적인 자질과 적절한 진로준비행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상담전공자의 개인적인 자질은 장차 이들이 상담전문가로서 활동한다는 전제하에 상담수련생의 자질로 논의되어 왔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상담전문가의 자질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상담전공자에게 필요한 여러 개인적인 자질 중, Corey와 Corey(2016)는 상담전문가가 되려는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자신의 심리적 문제나 갈등의 해소를 위해 상담전문가가 되려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또한 개인적인 자질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역량, 배우는 것에 대한 개방적 태도,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 역량,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상대를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수용하려는 태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역량, 자신의 욕구와 동기를 인식하는 역량, 유머감각 등을 언급했다. 이와 유사하게, 대학원 과정에 있는 상담수련생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전문상담수행평가(Professional Counseling Performance Evaluation: PCPE)에 따르면, 상담수련생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자질은 대인관계에서의 자기조절역량(화, 충동 조절), 타인에 대해 정직하고 공정하며 존경어린 태도,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욕구, 한계에 대한 인식, 타인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역량, 자기 확신, 자신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 자기결정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 다문화에 대한 수용력 등이다(Kerl et al., 2002). Rogers(2007)는 상담전문가에게 필수적인 태도를 진정성, 개방성, 진실성, 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수용, 배려, 존중, 공감적 이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 등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상담자의 개인적인 자질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상담전공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적절한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준비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로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결정 이후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원하는 직업에 입직하기 위해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갖추는 활동, 목표성취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 등)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김봉환, 1997). 이와 관련하여, Corey와 Corey(2016)는 본격적으로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전문가들과 대화해보고, 상담전공 석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학교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을 만나보기, 상담전문가가 자신의 직업의 가치관(급여, 직업적 명성, 고용안정성 등)과 일치하는지 검토해보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수의 상담관련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학습이나 상담전문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과 진로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김진옥, 정문주, 2018; 박중환, 지명자, 2018; 황채윤 등, 2009). 이러한 대학원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진로적응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관련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학교나

학회 차원에서 예비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비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대학원 준비도를 살펴보고, 부족한 역량이나 자질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한 대학원 상담전공준비도 개념을 구체화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대학원 상담전공 준비도 척도(Scale of Readiness for Majoring in Counseling: SRMC)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타당화 검증을 위해 사용된 척도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SRMC가 측정하는 상담전공 예비대학원생들의 진학 준비정도는 넓게 보면 진로준비정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검사를 통해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상담전공의 경우에는 학부 타 전공자의 진학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진학 후 상담관련 전공과 관련한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대학원 수학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인지적 학습역량이 전제가 된다(박현정, 신택수, 2007; 손소라, 안미라, 차현진, 2018). 실제로 선행연구결과, 인지역량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박레아, 양명희, 2019), 대학원생활적응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진정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의미하는 진정성은 정체성 및 건강한 대인관계의 지표이다(홍정순, 2017a; Lopez & Rice, 2006). 특히 상담전문가에게 진정성은 상담전문가가 자신, 내담자, 상담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자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자 자각된 것들에 대해 내담자와 진실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으로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동맹과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서준호, 이희경, 2014; 홍정순, 2017b; 홍정순, 정남운, 2013). 즉 진정성은 상담전문가의 개인적 자질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진정성은 상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자질로 알려져 있다(Kolden, Klein, Wang, & Austin, 2011). 따라서 SRMC가 학습역량이나 상담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원생활적응을 위한 준비도와 상담관련 전공자로서의 심리적인 준비정도를 측정하고 있어 인지적 학습역량, 진정성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유추하였다. 이에 학습역량검사-인지와 진정성 척도를 통해 준거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긍정 편향의 영향력 즉, 상담전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응답했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타당화한 SRMC는 예비 대학원생 및 대학원생들이 상담전공자로서 자신의 준비 정도를 평가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수자 및 상담 슈퍼바이저들에게 개입이 필요한 대학원생들을 선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대상

문항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 SRMC의 구성요소 도출을 위해 실시한 개방형 설문지의 연구대상은 상담관련

자격증 1급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또는 상담전공 박사수로 이상의 학력 소지자였다. 개방형 설문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고 총 40명이 참여하였는데 1급 자격증 소지 자격으로 참여한 사람은 38명(95.0%), 박사학위자 자격으로 참여한 사람은 2명(5.0%)이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3명(7.50%), 여성 37명(92.50%), 연령은 평균 46.375세(32세~70세), 최종학력은 석사 졸업 11명(27.50%), 박사과정 4명(10.0%), 박사수료 및 졸업 25명(62.50%), 슈퍼바이저 경험은 평균 46.375개월(1개월~14년)이었다. 또한 5년 이상 상담관련 대학원생을 지도 및 교육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수진은 모두 3명으로 여성이었고, 연령은 40대로 일반대학원 소속 1명,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소속 2명이었으며, 상담관련 대학원 강의 경력은 평균 18학기(16학기~20학기)였고, 모두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타당화 과정

본 연구의 타당화 과정은 상담관련 전공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학교 3학년은 본격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박윤희, 2016), 대학교 3학년 재학을 연구대상의 최소 학력으로 하였다. 또한 상담관련 석사과정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학부 비전공자로 직업전환을 원하기 때문에(최혜윤 등, 2019)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구대상의 학력, 연령, 직장인 여부 등을 제한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상담관련 대학원 진학 준비생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니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연구 참여 협조 게시물을 올렸다. 자료 수집은 2019.12.2.~2020.6.1.까지, 2020.12.22.~2021.2.28.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총 657건의 설문이 수거되었다. 이 중, 20세로 응답한 설문지 6건(전통적인 대학교 3학년생의 나이는 21~22세), 중복 참여로 유추되는 4건(연락처 동일), 인적사항을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1건(나이를 99세로 기재), 상담관련 전공 석사과정 재학 이상으로 유추되는 6건을 제외한 총 640건의 설문지 중에서 300건을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300건의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명(16.667%), 여성 250명(83.333%), 연령은 평균 31.567세(21세~60세), 결혼 상태는 미혼 203명(67.667%), 기혼 92명(30.667%), 이혼 4명(1.333%), 재혼 1명(3.333%)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생 102명(34.0%), 4년제 대졸 175명(58.333%), 석사과정 3명(1.0%), 석사 수료 및 졸업 17명(5.667%), 박사수료 및 졸업 3명(1.0%)이었고, 대학교 상담관련 학과(심리학과, 상담학과,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등) 출신은 142명(47.333%), 비전공 출신은 158명(52.667%)이었다. 직업은 경영·금융·사무직 26명(8.667%), 교육직 41명(13.667%), 사회복지·상담직 24명(8.0%), 서비스직 9명(3.0%), 보건·의료직 14명(4.667%), 문화·예술·스포츠직 7명(2.333%), 군인·경찰·소방직 4명(1.333%), 학생 103명(34.333%), 무직 61명(20.333%), 기타(영업·판매직, 법률직, 종교인, 건설직 등) 11명(3.667%)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활용한 300건의 설문을 제외한

340건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과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 57명(16.765%), 여성 283명(83.235%), 연령은 평균 32.30세(21세~62세)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 223명(65.588%), 기혼 104명(30.588%), 이혼 11명(3.325%), 재혼 2명(5.88%)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생 112명(32.941%), 4년제 대졸 198명(58.235%), 석사과정 5명(1.471%), 석사 수료 및 졸업 24명(7.059%), 박사과정 1명(2.94%)이었으며, 대학교 상담관련 학과(심리학과, 상담학과,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등) 출신은 180명(52.941%), 비전공 출신은 160명(47.059%)이었다. 직업은 경영·금융·사무직 27명(7.941%), 교육직 41명(12.059%), 사회복지·상담직 37명(10.882%), 서비스직 17명(5.0%), 보건·의료직 3명(8.82%), 문화·예술·스포츠직 6명(1.765%), 군인·경찰·방직 2명(5.88%), 학생 112명(32.941%), 무직 74명(21.765%), 기타(영업·판매직, 운전·운송직, 종교인, 법률직 등) 21명(6.176%)이었다.

연구 절차

구성요소 추출

SRMC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나, 예비대학원생의 자질이나 역량, 상담계에 진입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참고할만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상담전문가의 역량 및 자질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김기영, 1997; 남현주, 2014; 라수현, 이유정, 최명식, 2012; 정환경, 김수경, 2017; 조남정, 2016; Corey & Corey, 2016; Corey, Corey, & Callanan, 2014; Kerl et al., 2002; Richardson et al., 2009)를 개괄하였

고, 그중에서 국내 예비대학원생들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만을 선별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만으로는 SRMC 문항 개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담관련 자격증 1급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이거나 상담전공 박사수료 이상의 학력 소지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실시하여, 대학원 석사과정(상담전공)을 수학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과 상담을 전공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들, 상담 전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성격적 특성 및 자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5년 이상 상담관련 대학원생을 지도 및 교육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와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내용들이 진로를 상담전문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있어, 전공 교수진 면접 시에 상담전문가 외의 진로(연구자나 교육자 등)를 생각하고 있는 예비대학원생들에게도 해당 내용들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인터뷰에 응한 전공 교수진들은 상담 전공 석사과정생이라면 다른 진로를 고려하고 있어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역량은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여 구성요소 추출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예비 SRMC를 상담전공으로 대학원 석사과정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역량과 태도인 ‘대학원 수학준비’, 대학원 선택을 위한 정보탐색,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업환경 구축 등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정도인 ‘대학원 진학준비’, 상담전공자가 되려는 동기, 상담전문직에 대한 정보습득, 상담전문직으로서의 자세 등 상담전공자로서의 진로준비 정도를 살펴보는 ‘진로준

비’, 성격적 특성, 대인관계 형성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상담전공자로서의 개인적 역량을 살펴보는 ‘개인적 자질’이라는 총 4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예비문항 구성

상담전공 박사 1인이 먼저 문헌조사 결과, 개방형 설문지와 개별 인터뷰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상담전공 교수 1인, 상담전공 박사 1인, 상담전공 석사 1인이 함께 내용을 검토하여 기초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문항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모두 상담실무 경험과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수행 경험이 있었다. 기초예비문항 개발과정에서는 유사한 내용, 척도 문항으로 사용하기에는 모호한 내용, 일반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에만 해당하는 내용(학점, 영어, 통계능력 등에 대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원 수학준비’ 15문항, ‘대학원 진학준비’ 15문항, ‘진로준비’ 15문항, ‘개인적 자질’ 23문항 등 총 68문항의 기초예비문항이 완성되었다.

내용 타당도 검증

기초예비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먼저 석사학위를 취득한지 3년 이하인 2급 자격증(한국상담심리학회) 소지자 중에서 일반대학원 출신 2인(교육학과, 심리학과 각 1인), 교육대학원 출신 1인, 상담대학원 출신 1인, 상담대학원대학교 출신 1인에게 5점 척도(1=“매우 부적절하다”, 5=“매우 적절하다”)를 사용하여 각각의 문항이 대학원 유형에 상관없이 응답하기 용이한지, 문항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한지,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지 등을 기준으로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 평정하

도록 하였다. 그 결과, 2인 이상이 2점 이하(“부적절하다”)로 평정한 문항은 없었으나, 중복되는 내용의 문항 2개를 삭제하고(예. “나는 이론서 또는 연구논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다”) 용어 수정 등이 제안된 문항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전공 교수 2인이 1차 내용 타당도와 동일한 절차로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2인 모두 2점 이하(“부적절하다”)로 평정한 3개 문항(예. “나는 인문학(철학, 문학, 사회학 등)에 관심이 있으며 관련 도서를 종종 읽는다”), 내용이 유사한 문항,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항 등 42개 문항을 추가 삭제하였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사용될 총 21문항을 완성하였다.

측정 도구

대학원 상담전공 준비도 척도(Scale of Readiness for Majoring in Counseling, SRMC)

본 연구에서 개발한 SRMC는 상담전공 석사과정 진학 희망자들의 준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진로준비’ 5문항, ‘대학원 진학준비’ 3문항, ‘개인적 자질’ 7문항의 3개 하위차원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총점 .801, ‘진로준비’ .719, ‘대학원 진학준비’ .632, ‘개인적 자질’ .768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검사(Career Preparation

Behavior Test, CPBT)

본 연구에서는 SRMC의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 측정을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하였고, 이후 이명숙(2003)이 인터넷 및 대학상담센터 활용과 관련한 2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진로준비행동검사는 총 16문항으로, ‘정보수집활동’(예.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았다”), ‘도구구비활동’(예.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실천적 노력’(예.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의 3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4, 이명숙(2003)의 연구에서는 .88, 본 연구에서는 총점 .884, ‘정보수집활동’ .716, ‘도구구비활동’ .752, ‘실천적 노력’ .772로 나타났다.

학습역량 검사-인지(Learning Competence Test-Cognition, LCM-C)

본 연구에서는 SRMC의 준거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경화, 김은경, 고진영, 박춘성(2011)이 개발한 학습역량 검사 중 ‘인지’ 영역의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LCM-C는 대학생들의 학습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인지’ 영역은 ‘지식과 사고(고등사고, 초인지)’, ‘창의성(창의적 능력, 창의적 성향),

‘문제해결능력(문제해결과정, 조작과 실천)’의 3개 하위차원 34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학습과 관련이 큰 고등사고와 초인지를 측정하는 ‘지식과 사고’(예. “나는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한다”)에 해당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아주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과 사고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경화 등(2011)의 연구에서 ‘인지’ 영역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87, 본 연구에서 ‘지식과 사고’의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진정성 척도(Korean Authenticity Scale, KAS)

본 연구에서는 SRMC의 준거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홍정순(2017a)이 개발한 진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개인 내적 특성과 태도로서의 진정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치성’(예. “내 감정에 솔직하지 않고 거짓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 ‘내적 경험에 대한 비편향적인 자각’(예. “순간순간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드는지 잘 알아차린다”), ‘진심어린 태도’(예. “상대와 진심으로 함께 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의 3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정순(2017a)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일치성’ .83, ‘비편향적인 자각’ .83, ‘진심어린 태도’ .8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총점 .830, ‘일치성’ .858, ‘비편향적인 자각’ .790, ‘진심어린 태도’ .855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 SDS)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사용으로 인한 긍정성 편향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SRMC의 수렴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긍정적 편향의 가능성이 있는 척도의 사용에서는 이를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SDS는 Crown과 Marlowe(1964: 이주일, 1988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33개 문항의 단축형으로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일(1988)의 번안본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1번 문항(“나는 누군가 격려를 해 주지 않으면 내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과 9번 문항(“나는 내 맘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항상 예의 바르다”)을 제외한 1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내려 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주일(198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74, 본 연구에서는 .606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문항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축요인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수렴 및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대학

생용 학습역량 검사, 진정성 척도, 진로준비행 동검사와 편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증 분타당도 검증을 위해 진정성 척도와 대학생 용 학습역량검사 각각을 준거변인으로 진로준 비행동검사와 SRMC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프로그램의 알 고리즘에 기초해서 개발된 Jamovi 1.2.27을 통 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의 요인모형 적합도 를 산출하고 평행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 로 AMOS 18.0을 사용하여 최대우도법으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문항 선 별을 위해 예비 SRMC 21문항 간에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 이상으로 상관관 계가 있는 문항은 없었으나, 모든 문항과 .3 이하로 상관관계가 있는 문항이 1개 있어 그 문항을 삭제하였다(“나와 비슷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을 상담하게 된 다면 내일 같이 느껴져서 힘들 거 같다”). 따 라서 전체 20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적

합성을 보여주는 KMO(Kaiser-Meyer-Olkin) 값 은 .854, Barlett 구형성 지표(Barlett’s Test of Sphericity)는 $\chi^2(n=300)=1452.911$, $p<.001$ 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료임 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 스크리 도표, 평행분석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고유치가 1보다 큰 요인은 4개로 나타 났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고유치 1만을 기 준으로 요인 수를 결정하면, 요인 수가 과대 혹은 과소 추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을 고 려하여(O’Connor, 2000; 홍정순, 2017a에서 재 인용), 평행분석을 실시한 결과 4요인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크리 도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네 번째 요인 이후부터 평평 한 기울기를 보여 3요인의 가능성이 확인되었 고, 요인 수에 따른 적합도 결과도 표 1과 같 이 2요인 모델에서부터 RMSEA .08 이하로 적 합했으나 4요인부터는 적합도 값의 변화가 .01 이하로 적어 3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외에도, 요인의 구조, 해석 가능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3요인 모형을 채택하 였다.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고 주축요인추출법 과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을 재실시하였고, 집중타당성 확보를 위해 요인부하량 절대값이 .30 미만인 2개 문

표 1. SRMC 요인모형의 적합도 결과 (n=300)

Model	χ^2	df	p	RMSEA
1 Factor	507	170	.000	.081
2 Factor	355	151	.000	.067
3 Factor	210	133	.000	.044
4 Factor	165	116	.000	.037

표 2. SRMC의 하위 요인과 각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n=300)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5문항	3문항	7문항
3. 나는 대학원에 입학한 후, 전업학생이라면 재정적인 부분을, 자녀가 있다면 육아와의 병행을, 직장이 있다면 학업과의 병행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504		
5. 나는 진학하려는(관심 있는) 대학원의 학생을 만나거나, SNS 등을 통해서 교수님 및 학교에 대한 평을 수집해 본 적이 있다.		.572	
6. 나는 진학하려는(관심 있는) 대학원의 입학전형(서류, 필기시험, 구술시험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구체적인 준비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다.		.683	
7. 나는 상담대학원,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원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나의 진로방향에 맞는 대학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484	
8. 나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이를 체계화하거나, 구조화해서 정리하는 편이다.			-.305
9. 나는 단순히 상담분야 공부에 대한 흥미뿐만이 아니라,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예. 추론능력, 통합적 사고능력 등)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있다.	.607		
10. 나는 석사과정을 포함하여 상담전문가로 활동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상담분야에서 전문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522		
13. 상담을 하다보면 내담자의 고통이 상담자의 삶의 고통과 연결되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534		
14. 나는 성, 연령, 종교, 재정상태, 장애, 성적지향 등이 다양한 내담자들을 상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	.693		
15. 나는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도 조금해지지 않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			-.536
16. 나에게서는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 있다.			-.404
17. 나는 삶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를 성장을 위한 기회로 여긴다.			-.460
18.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한다.			-.472
19. 나는 나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			-.811
20. 나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편이다.			-.632
초기 고유값	5.224	1.787	1.542
신뢰도	.719	.632	.768

주. 선별된 문항만을 제시함.

항, 변별타당도 확보를 위해 둘 이상의 요인에서 요인부하량 절대값이 .30 이상이거나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0 미만인 3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각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총 5문항으로 상담전문직에 대한 정보 습득(예. “나는 석사과정을 포함하여 상담전문가로 활동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상담분야에서 전문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담전문가로서의 자세(예. “나는 성, 연령, 종교, 재정상태, 장애, 성적지향 등이 다양한 내담자들을 상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가 포함되어 ‘진로준비’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 변량의 23.069%를 설명하였고 신뢰도는 .719였다. 요인 2는 총 3문항으로 대학원 선택을 위한 정보탐색을 반영하는 문항(예. “나는 진학하려는(관심 있는) 대학원의 학생을 만나거나, SNS 등을 통해서 교수님 및 학교에 대한 평을 수집해 본 적이 있다”)이 포함되어 ‘대학원 진학준비’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 변량의 5.882%를 설명하였고 신뢰도는 .632이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7문항으로 자기조절 역량(예. “나는 나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 대인관계에서의 태도(예.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한다”) 등 상담전공자로서의 개인적인 역량이 포함되어 ‘개인적 자질’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 변량의 4.727%를 설명하였고 신뢰도는

.768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밝혀진 3요인, 15문항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3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CFI .921, TLI .904, RMSEA .058, SRMR .057로 나타났다. 즉, TLI, CFI .90 이상, RMSEA와 SRMR는 .08 이하 기준에 따라 SRMC의 3요인 구조는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524~.843으로 모든 문항이 .50이상 기준에 부합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1.96이상($p < .01$) 기준에 부합하였다. 요인간의 상관관계수는 .405~.640으로 요인1과 요인3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해당 요인 간의 공분산을 1로 제약한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 간의 χ^2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두 모델 간의 χ^2 차이가 228.05로 유의미한 것($\chi^2 = 3.84$ 이상)으로 나타나 변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타당도 검증

SRMC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 CPBT와 상관관,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학습역량 중 인지 영역을 측정하는 LCM-C의 일부 문항과 진정성을 측정하는 KAS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SRMC는 진

표 3. SRMC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결과 (n=340)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SRMR
3요인 모형	187.878	87	.000	.921	.904	.058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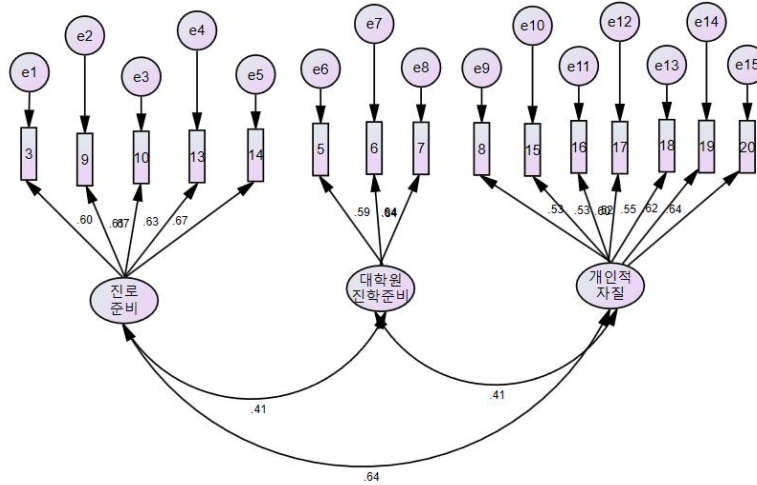


그림 1. 3요인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로준비행동($r=.557, p<.001$), 인지적 학습역량 ($r=.566, p<.001$), 진정성($r=.361, p<.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SRMC의 수렴타당도와 준거타당도는 확인되었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SRMC의 증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LCM-C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SRMC를 예언변인으

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준비행동검사와 SRMC는 진로준비 정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개념을 공유하나, 진로준비행동검사는 진로준비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SRMC는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각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분타당도 실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표 5-1과 같이 진로준비행동검사는 인지적 학습

표 4. SDS 통제 후, SRMC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n=340$)

	진로준비	대학원진학준비	개인적 자질	SRMC
진로준비행동	.276***	.546***	.371***	.557***
인지적 학습역량	.447***	.302***	.669***	.566***
진정성	.423***	.103	.446***	.361***
M	4.342	3.396	3.827	3.855
SD	.549	.948	.539	.525
왜도	-.858	-.230	-.205	-.231
첨도	.285	-.603	.263	-.156

주. *** $p<.001$

표 5-1. 인지적 학습역량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n=340$)

예언변인	R ²	ΔR ²	F	β	t
1단계					
진로준비행동	.176	.174	72.332***	.420	8.505
2단계					
진로준비행동	.345	.341	88.773***	.139	2.613
SRMC				.497	9.319

주. *** $p < .001$

표 5-2. 진정성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n=340$)

예언변인	R ²	ΔR ²	F	β	t
1단계					
진로준비행동	.027	.024	9.433**	.165	3.071
2단계					
진로준비행동	.169	.164	34.150***	-.092	-1.527
SRMC				.455	7.569

주. ** $p < .01$ *** $p < .001$

역량의 17.4%를 설명했으며($F_{(1, 338)}=72.332, p < .001$), SRMC는 추가로 16.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2, 337)}=88.773, p < .001$). 이러한 결과는 SRMC가 진로준비행동검사가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한 변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진정성 척도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SRMC의 증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SRMC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2와 같이, 진로준비행동검사는 진정성의 2.4%를 설명했으며($F_{(1, 338)}=9.433, p < .01$), SRMC가 추가로 14.0%를 설명해주었다($F_{(2, 337)}=34.150, p < .001$). 이는, SRMC가 진로준비행동검사가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한 변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논 의

최근 많은 대학에 상담전공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면서 상담관련 전공자가 늘고 있다(조남정 등, 2015). 이들 중 일부는 상담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없이, 상담을 전공하면 자기이해, 성찰 및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다양한 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이상민, 김은하, 김지연, 선혜연, 2018; 이정화, 이상민, 박성륜, 이지희, 2011; 황채윤 등,

2009). 이러한 대학원생들의 적응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전공자로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학업적 능력, 경제적 상황, 진학 동기와 더불어 상담관련 진로에 대한 정보(예. 상담현장, 자격증, 졸업 후 진로)를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이나 학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상담에 관심이 있는 예비 전공생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에 대한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을 전공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측정하는 대학원 상담전공 준비도 척도(SRMC)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SRMC는 15문항, 3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요인 1은 '진로준비'로 상담이나 상담전문가에 대한 정보(예.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상담전문가가 겪는 어려움)와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려는 동기 및 자세(예. 다문화 역량을 키울 필요성)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있다. 이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서 중요한 차원 중 하나로 환경에 대한 이해(예. 전공 및 직업에 대한 지식)를 강조한 여리학자(임언, 윤형한, 2005; 최윤경, 김성희, 2012)들의 주장과 상담전문가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상담심리사 윤리적 강령(한국상담심리학회, 2020)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상담을 전공으로 선택하기 전에 상담관련 전공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성찰, 슈퍼비전 및 교육을 통해 상담전문가로서 자신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특히, 상담전공 석사학위자를 대상으로 한 황채윤 등(2009)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상담 분야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 상담현장의 열악함을 알게 되거나 수련과정 자체나 수련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상담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상담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현실간의 괴리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다(박신영, 2017).

요인 2는 '대학원 진학준비'로 대학원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이 요인은 요인 1이 측정하는 상담이라는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대학원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상담관련 대학원에 일반대학원(교육학과, 심리학과 등),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등 여러 유형의 대학원이 포함되어 있고, 각 대학원마다 교육과정이나 교육목표가 다르며(교육과학기술부, 2013), 지도교수마다 강조하는 연구나 상담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대학원에 대한 만족이나 적응을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개인적 자질'로 자기조절역량, 특히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상황 혹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포함되었다. 이 요인은 상담전문가의 자기돌봄(self-care)과 자기관리 능력이 소진과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보호요인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홍기목, 김광웅, 2012; Skovholt, Grier, & Hanson, 2001)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상담전문가의 자기돌봄과 자기관리는 윤리적 측면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즉 자기돌봄과 자기관리는 상담

전문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담전문가의 윤리적 책무라는 것이다 (강현주, 이홍숙, 최한나, 2016).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원 입학 전부터 자기돌봄이나 자기관리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담전공의 경우, 학문적인 교과과정과 상담 실무 과정을 병행해야 하는 등 다른 전공에 비해 더 복잡한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황채운 등, 2009) 자기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요인 3에는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타인의 입장을 취하는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를 통해 중요하다고 밝혀진 상담전문가의 인간적 자질(예. 수용성, 인간관계능력, 공감 능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김충기, 강봉규(2003), Benuto, Casas와 O'Donohue (2018), Heinonen과 Nissen-Lie(2019), 그리고 Miville, Carozzi, Gushue, Schara과 Ueda(2006)의 연구에 따르면, 상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인간적인 자질로는 수용성, 인간관계능력, 공감 능력 등이 나타났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 결과는 작업동맹이 상담 성과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윤정숙, 유성경, 홍세희, 2012)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2008)의 연구에서 '정(情)'과 결속력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진 바,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인 3에 포함된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담자의 자기조절역량과 대인관계 기술을 포함한 요인 3은 일반적인 학습역량이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

(예. 대학생용 학습역량검사, 진로준비검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본 척도에서만 고유하게 도출된 요인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역량이나 진로준비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만으로는 상담전공 준비도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SRMC의 3요인 구조는 대학원 상담전공 준비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없고 관련 연구도 부족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인 진로준비모델과 상담전공 대학원생 혹은 상담자 역량 및 자질을 살펴본 선행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진로준비 문헌에서는 진로준비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직업 환경에 대한 탐색 및 정보수집(Abdullah, Hussin, Shonubi, Ghazali, & Taib, 2018; Blustein, Ellis, & Devenis, 1989), 자기성찰 및 자기돌봄이 강조되는데, 이는 각각 요인 1 '진로준비'와 요인 3 '개인적 자질'과 유사하게 대응된다. 또한 상담대학원생들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Carlson, Portman과 Bartlett(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관리와 자기돌봄 능력이 있고, 사전에 충분히 자신이 진학할 대학원에 대해 알고 있었던 대학원생들이 높은 대학원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각각 요인 3 '개인적 자질'과 요인 2 '대학원 진학준비'와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 3 '개인적 자질'의 일부 문항은 상담전공 대학원생이나 상담전문가에게 필요한 인간적 자질을 강조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Miville et al, 2006; Rønnestad & Skovholt, 2003)와 일치한다.

둘째, SRMC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후 진로준비행동검사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SRMC의 수렴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상담전공준비도 척도의 총점, 요인 1, 요인 2, 요인 3과 진로준비행동검사 간에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셋째, SRMC의 준거타당도와 증분타당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한 후, 본 척도의 총점, 요인 1, 요인 2, 요인 3이 진정성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SRMC의 준거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요인 2는 진정성 척도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요인 2가 개인 내적 특성과 태도로서의 진정성(‘일치성’, ‘내적 경험에 대한 비판향적인 자각’, ‘진심어린 태도’)과 상관없는 대학원 진학준비와 관련한 문항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SRMC의 증분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도 나타났는데, 이는 SRMC가 종속변인(진정성, 인지적 학습역량)에 대한 진로준비행동검사의 설명량 외에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전공 대학원에 관심이 있는 개인의 진정성과 인지적 학습역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진로준비행동검사와 더불어 SRMC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담전공 대학원에서 성공적으로 학업 및 수련을 마치는데 필요한 요인을 탐색하고 밝혔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상담전문가에게 필요한 태도, 역량, 기술 그리고 상담 성과와 관련이 있는 상담자 요인에 대한 연구(김영근, 2013; 김창대 등, 2008; 김창대, 한영주, 손난희, 권경인, 2009; 이정화, 연문희, 2009; Lutz, Wolfgang, Martinovich, Lyons, & Stiles, 2007; Paulson, Truscott, & Stuart, 1999)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상담전공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어떤 역량이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과 상담교수 및 상담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담전공 대학원생에게 필요한 요인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른 진로에 대한 준비도와 유사하게 상담 진로에 대한 준비도를 구성하는 요소도 다차원적이라는 점, 특히 대학원 상담전공준비에는 전공 및 직업에 대한 지식, 자기관리 역량, 대학원 진학 준비행동, 심리적 안정성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밝혔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이러한 개념적 구조를 반영하여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준비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SRMC는 상담전공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준비정도를 평가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재탐색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평가 과정은 상담을 전공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담의 질을 높여 내담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비한 대학원 상담전공 준비도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상담전공 대학원을 준비하는 자, 상담전공 대학원생, 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는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어떤 기준이나 내용으로 상담전공 대학원생을 선발하거나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RMC는 상담 장면이나 상담전문가 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가령, 상담전공 대학원에 관심이 있는 내담자와 상담할 시, 상담전문가는 SRMC의 3요인을 토대로 어떤 영역에서 내담자의 준비도가 부족한지 살펴보

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진로준비’가 낮은 내담자의 경우,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과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각각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Corey와 Corey(2016)가 제안한 것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보거나 상담전문가들의 SNS 등을 통해서 상담현장에 대한 정보(예. 상담전문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소진)를 수집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이정화 등(2011)이 개발한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 척도를 활용하여 자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상담전문가로서 자신의 한계 인정하고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대학원 진학준비’가 낮은 내담자와 상담할 때는 SRMC의 문항을 활용하여 대학원 정보수집, 진학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 세우기, 실행하기 등의 과정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역량에 맞는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자질’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내담자에게는 낮은 자기조절능력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대학원에서의 학업과 상담수련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하고, 이러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본 척도는 상담전문가 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3요인에 포함된 문항을 활용하여 상담수련생이 자신의 부족한 역량이나 자질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 그 예로는 위기상황이나 갈등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나 시간관리, 스트레스 대처 방안, 모호하거나 애매한 상황에 대한 인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상담수련

생들은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방법,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작업동맹을 맺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SRMC를 사용하는데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어떤 목적으로 SRMC를 사용하든 이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전공할 수 없거나, 상담전문가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특히, SRMC는 아직 상담전공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은 일부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학원 상담전공 준비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cutoff) 점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담전문가, 연구자 혹은 교육자들은 이 척도의 점수를 평가나 진단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탐색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요인 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은 3개 이상의 문항을 포함해야한다는 기준에는 부합하나(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Zwick & Velicer, 1986),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신뢰도가 다소 낮고, 1개 문항이 5 이하로 다소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어 단독으로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SRMC 사용에서는 3가지 요인 모두를 사용하여 총점이 산출되어야하며, 요인별 하위점수 특히 요인 2의 경우에는 총점 사용 시에만 해당 영역에 대한 준비도를 살펴보는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상담전공 석사과정 진학 준비자들의 자기점검 및 자기평가를 위해서 요인 2의 단독 사용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원들이 크게 일반대학원(교육학과, 심리학과 등),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대학원에 소속된 교수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SRMC는 여러 유형의 대학원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대학원의 특성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일반대학원 진학 희망자들의 경우에는 진로를 상담전문가로 생각하는 경우보다는 연구자나 교육자 등 다른 진로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교육대학원 등에서는 현 직업에서 상담을 적용하기 위해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척도는 이들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한 준비정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SRMC를 토대로, 다른 유형의 대학원에 필요한 지식, 자질, 태도를 구분하여 탐색하고 관련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수진과의 인터뷰와 선행 연구(박현정, 신택수, 2007)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학업역량과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는 예비문항을 개발하였으나, 요인구조 분석 과정에서 이 문항들이 다수 삭제되었다. 현재 일부 대학원에서는 지원자들의 학업역량이나 상담관련 학문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면접과 더불어 별도의 시험을 개발 및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대학원이 시간이나 자원 등의 한계로 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과 관련한 학업역량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SRMC의 문항들은 경

험(~한 적이 있다), 상태(~수 있는 편이다), 확인(알고 있다)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문항 기술의 측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요인 2의 문항과 요인 3의 문항 중 일부(예. “나에게는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 있다”)는 상담전공자에게만 국한된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타당화 과정을 상담전공자가 아닌 예비상담전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전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문항이 다수 배제된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이에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SRMC를 재타당화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척도를 개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SRMC를 자기보고식으로 개발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담대학원 준비생들이 스스로 이 척도를 통해 자신의 준비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자신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배병훈 등, 2015),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학원 상담전공 준비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원 상담전공준비도의 구성 요소를 탐색하고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SRMC는 상담전공 대학원생 선발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상담전공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준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상담대학원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체계적인 대학원 선발, 교육과정,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인규, 2018), SRMC가 대학과 학회 차원에서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역량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관련 연구를 실시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현주, 이홍숙, 최한나 (2016). 상담자의 자기 돌봄(self-care) 인식에 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7(2), 25-45.
- 교육과학기술부 (2013). 2014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7&boardSeq=42255&lev=0&m=030308> 에서 2019, 5, 6 자료 얻음.
- 김기영 (1997). 상담자 자질 평가용 Personality Rating Scale 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학생생활상담, 16, 5-15.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2012). 조화와 통합 지향 카운슬링을 위한 상담자 역량 탐색. 상담학연구, 13(6), 2697-2713.
- 김영근 (2013). 치료적 요인으로서의 상담자 요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03-226.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 김정택, 도상금 (1993). 상담자 교육에 대한 연구: 대학원 석사과정 상담 교육의 현황과 전문상담자 양성 인터뷰를 위한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5(1), 13-29.
- 김지유 (2018). 특수대학원에 속한 상담대학원생의 경험: 안개 속을 걷는 학생들. 대전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옥, 정문주 (2018). 중·노년층 여성 초심상담자의 상담과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573-586.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창대, 한영주, 손난희, 권경인 (2009). 상담전공 내담자가 지각한 효과적인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10(1), 83-107.
- 김충기, 강봉규 (2003). 현대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남현주 (2014). 기업 내 상담자의 역량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HRD연구, 16(1), 169-206.
- 라수현, 이유정, 최명식 (2012). 슈퍼바이저들의 슈퍼바이저 평가 항목에 대한 개념도 분석 연구. 인간이해, 33(1), 103-122.
- 박레아, 양명희 (2019).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자기조절학습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4), 89-97.
- 박선민, 양지웅 (2019).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는 기혼여성의 학업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259-284.
- 박신영 (2017). 초심상담자의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 진로단절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희 (2016).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 램의 효과성 연구: 서울 소재 S대학교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9(1), 165-183.
- 박종환, 지명자 (2018). 기혼여성의 상담대학원 수학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1), 378-392.
- 박현정, 신태수 (2007). 고등교육기관 핵심 역량의 구조화 및 경쟁력 지표의 개발과 적용: S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21-53.
- 배병훈, 이동귀, 함경애 (2015). Rasch 모형을 이용한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SDS-9)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6(6), 177-197.
- 서준호, 이희경 (2014). 상담자의 진정성과 작업동맹의 관계에서 소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717-1734.
- 손소라, 안미라, 차현진 (2018). 대학원생 표준 학술능력 진단평가 도입 제안: 호주 시드니대학교 MASUS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2(1), 115-118.
- 안가은 (2015). 특수교육대학원 심리치료 관련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조사. *특수교육논총*, 31(1), 21-45.
- 안현의 (2003).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61-475.
- 유영권, 정승진, 문영주, 이경아, 이상선 (2011). 대학상담센터 상담자의 역량과 자질 연구. *대학생활연구*, 17(1), 1-17.
- 윤정숙, 유성경, 홍세희 (2012). 상담 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4), 1903-1919.
- 이경화, 김은경, 고진영, 박춘성 (2011). 대학생용 학습역량 검사(LCT-CMB)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4), 791-809.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민, 김은하, 김지연, 선혜연 (2018). 상담심리학의 현재와 미래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63-474.
- 이선미 (2018). 상담전공 교육대학원생의 진로동기, 진로장벽에 관한 질적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균, 김수현, 강민정, 홍현균, 정슬기, 방글, 공정승, 이해연, 이진면, 전병유, 안주엽, 성지미, 홍성민, 박세경, 심정민, 윤문희 (2016).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 한국고용정보원.
- 이정화, 연문희 (2009). 치료 동맹의 발달 유형과 상담 성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24.
- 이정화, 이상민, 박성륜, 이지희 (2011). 상담자 진로결정 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2(6), 2145-2161.
-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자기검색척도와 자기 의식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언, 윤형환 (2005). 대학생용 진로개발준비도 검사 개발. *진로교육연구*, 18(1), 116-132.
- 정환경, 김수경 (2017). 전문상담교사의 역량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1), 349-370.
- 조남정 (2016). 상담전공 학부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17(3), 23-43.

- 조남정, 이미현, 김인규 (2015). 상담전공 학부생의 교육과정 경험 연구. *상담학연구*, 16(3), 303-324.
- 조운진, 유성경, 박소현, 윤민지, 장운진 (2010). 상담 석사 과정에 대한 석사생들의 교육 경험 및 만족도 분석. *인간이해*, 31(2), 103-122.
- 최윤경, 김성희 (201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5), 2085-2097.
- 최혜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 최혜윤, 김은하, 홍숙선 (2019). 상담전문가로 진로전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경험. *상담학연구*, 20(3), 141-164.
- 한국상담심리학회 (2020).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http://krcpa.or.kr/sub01_5.asp?menuCategory=1 에서 2020. 7. 28. 자료 얻음.
- 홍기목, 김광웅 (2012). 상담자의 자기 돌봄에 대한 개념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고찰.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2), 153-177.
- 홍정순 (2017a). 진정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29-158.
- 홍정순 (2017b). 상담자의 진정성과 내담자가 보고한 작업동맹과의 관계: 상담관계기술과 내담자의 상담자 지각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577-605.
- 홍정순, 정남운 (2013). 상담자 진정성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371-395.
- 황채윤, 박지아, 유성경, 강지연 (2009). 상담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3), 1359-1382.
- Abdullah, N., Hussin, N., Shonubi, O. A., Ghazali, S. R., & Talib, A. (2018). Career decision-making competence, self-knowledge, and occupational exploration: A model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10(1), 71-81.
- Benuto, L. T., Casas, J., & O'Donohue, W. T. (2018). Training culturally competent psychologists: A systematic review of the training outcome literature.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12(3), 125-134.
- Blustein, D. L., Ellis, M. V., & Devenis, L. E. (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3), 342-378.
- Carlson, L. A., Portman, T. A., & Bartlett, J. R. (2006). Self-management of career development: Intentionality for counselor educators in training.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45, 126-137.
- Corey, M. S., & Corey, G. (2016). *좋은 상담자 되기*. (이지연, 김아름 역).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원전은 2010년에 출판).
-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 (2014). *상담 및 심리치료 윤리*. (서경현, 정성진 역).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원전은 2011년에 출판).
- Heinonen, E., & Nissen-Lie, H. (2019). The profession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 effective psychotherapists: A systematic review. *Psychotherapy Research*, 30(4), 1-16.
- Kerl, S. B., Garcia, J. L., McCullough, C. S., & Maxwell, M. E. (2002). Systematic Evaluation of Professional Performance: Legally Supported Procedure and Proces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1(4), 321-334.
- Kolden, G. G., Klein, M. H., Wang, C., & Austin, S. B. (2011). *Congruence/Genuineness*. IN J. C. Norcross (Ed) *Psychotherapy relationships that work* (2nd Revised Edition; pp. 187-20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pez, F. G., & Rice, K. G. (2006).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62-371.
- Lumadue, C. A., & Duffey, T. H. (1999). The role of graduate programs as gatekeepers: A model for evaluating student counselor competence.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9(2), 101-109.
- Lutz, Wolfgang, Martinovich, Z., Lyons, J. S., & Stiles, W. B. (2007). Therapist effects in outpatient psychotherapy: A three-level growth curve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32-39.
- Ma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1), 84-99.
- Miville, M. L., Carlozzi, A. F., Gushue, G. V., Schara, S. L., & Ueda, M. (2006). Mental health counselor qualities for diverse clientele: Linking empathy, universal-diverse orient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8(2), 151-165.
- Paulson, B. L.,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17-324.
- Richardson, J., Sheean, L., & Bambling, M. (2009). Becoming a therapist or counsellor: A survey of psychotherapy and counselling trainers. *Psychotherapy in Australia*, 16(1), 70-80.
- Rogers, C. (2007). 칼 로저스의 사람 중심 상담.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0년에 출판).
- Rønnestad, M. H., & Skovholt, T. M. (2003). The journey of the counselor and therapist: Research findings and perspectives o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1), 5-44.
- Skovholt, T. M., Grier, T. L., & Hanson, M. R. (2001). Career counseling for longevity: Self-care and burnout prevention strategies for counselor resilie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3), 167-176.
- Vacha-Haase, T., Davenport, D. S., & Kerewsky, S. D. (2004). Problematic student: Gatekeeping practices of academic professional psychology program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5(2), 115-122.
- Zwick, William R., Velicer, Wayne F. (1986).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99(3), 432-442.

원고접수일 : 2020. 08. 11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9. 25
게재결정일 : 2021. 03. 25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ale of Readiness for Majoring in Counseling

Hye-Yoon Choi¹⁾

Eunha Kim²⁾

Daye Kim³⁾

¹⁾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Career Development & Counseling Center Counselor

²⁾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Professor

³⁾Soongin Middle school Wee class Counsel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Scale of Readiness for Majoring in Counseling (SRMC). A literature review, open-end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used to develop 21 items for the SRMC. Content validity was confirmed by master-level counselors counseling psychology faculty. Next, an online survey with 640 individuals interested in pursuing master's degrees in counseling-related field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a sample of 300 participants revealed a 3-factor structure with 15 items.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in a separate sample of 340 participants reconfirmed the model. The three factors of the SRMC were labeled as "career preparedness", "preparedness for graduate schoo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nternal consistency of the SRMC was .801. Convergent and concurrent validities were examined via correlations with measure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arning competence on cognition, and authenticity while controlling social desirability.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 *majoring in counseling, readiness for majoring in counseling, Scale of Readiness for Majoring in Counseling, Validation*